

## 정세현 통일부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2004년 5월 13일 11:00~11:40 제1브리핑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갖고 ▲장성금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제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 ▲북한 용천 재해복구 지원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 ▲개성공단 건설현황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북측 대표단의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국제회의 참가 방남승인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우선 정 장관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회담 마지막 날 북한이 태도를 바꿔 군사당국자회담에 합의한 것이었다면서 북측이 오는 26일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하자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제시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제10차 이산가족상봉사업은 6월 중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기에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우리측이 먼저 북측에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남북관계가 U-Turn하기에는 어려운 정도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 회담에서 확인했다고 말하며 경제, 사회 부분의 교류협력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천재해구호와 관련해서는 지난 주까지는 긴급구호물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복구를 위한 자재장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WHO에 20만 달러를 지원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인 지원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5월 7일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서 덤프트럭이 갔고 오늘(13일)도 복구 장비인 굴삭기와 휠로더가 단동을 통해 신의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15일에는 쌀 5천톤을 전달하기 위한 배도 군산에서 출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이었다.

정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내일(14일)부터 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고, 1단계로 교역분야에서의 반출입 손실보조를 시행하고, 3/4분기에는 2단계로 위탁가공설비 반출 및 경험분야로 손실보조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손실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급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손실보조약정절차를 간소화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관부처와 협의해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조제도의 시행으로 남북간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480여개 업체들이 상당한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서는 임차료 지급방법을 놓고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측의 해당 기관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합의점을 찾는 대로 시범단지를 분양하고 하반기에는 100만 평에 대한 분양도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공금증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관리기관의 이사장 선임문제와 관련, 이 업무를 담당할 인물은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첫 시범사업을 하는 현장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북협상 경험도 있어야 하고 공단관리 경영능력도 있는 인물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데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며 6월말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에 파주-문산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최대한 서둘러 다음 주 초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3월 30일에 수해방지 관련 합의서가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되었으며 홍수예방을 위한 현지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 문제 등도 협의가 됐다고 전하며 우리측은 기자재를 5월 18일 북측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관련 국제 심포지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이 심포지움에는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이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최영건 북측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 7명이 참석한다고 밝히며 그들의 남한 방문은 승인되었음을 알렸다. 이들은 5월 17일 항공편으로 서울에 도착해 22일까지 머물면서 심포지움에 참석하는데 이 회의는 2003년 8월에 하바로프스키에서 1차 회의가 열렸고 그해 12월에 평양에서 2차 회의가 열렸으며 이번 5월에 서울에서 3차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북한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다음은 질의답변 내용이다.

Q : 협력기금손실보존제도와 북한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또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결과로 이루어진 군사당국자회의와 연락관 접촉을 북쪽에서 하는 걸로 정리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각 부처간 조율이 이루어진 것인가?

A : 장성급회담은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내 입장이 일치했다. 그래서 회담 의제에 들어갔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 북측은 북측대로 내부의 필요에 의해 회담 초반에 그들의 페이스로 끌고 가려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부분에 대해 국방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조율해서 협의를 통해 개최해 나갈 것이다.

Q : 중점을 두었던 꽃게잡이철 우발적 충돌방지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 장성급회담 의제를 어떤 부분에 두고 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A :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겠지만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았다. 꽃게 잡이는 6월까지이다. 그리고 장성급회담에서 일단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꽃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꽃게잡이철에 충돌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와 연관이 되는 것뿐이다. 그러한 충돌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군사당국자간에 특히 장성급 회담을 해야 한다는데 입장이 일치되었다. 일단은 우발적 충돌방지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남북간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

Q : 동북아전력계통 연구문제 세미나는 개성공단 전력 지원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개성공단건설이 본격화 될 때 건설자재 장비를 휴전선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가?

A : 동북아전력연계라는 것은 시베리아의 풍부한 수력발전을 북한이나 한국에 어떻게 팔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시작된 것이다. 공단이 조성되면 하반기부터 시범단지에 들어가는 공장에 전기가 필요하지만 그와는 별개의 문제다. 개성공단 시범단지는 1만 5천 Kw 정도가 필요한데 그건 가정에 전기가 들어가는 식의 배전방식으로 해결이 된다. 공단이 100만 평이 되면 7만5천kW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세우고 변전소를 만들어 배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장비는 이미 북한이 개성특구를 지정할 때부터 동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휴전선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Q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마지막에 합의를 내온 배경과 용천사고에 대한 국민적인 지원분위기와 정부의 노력 등이 그런 합의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A : 현재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북지원과 관련된 우호적 분위기가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북측이 소위 3실주의에 입각해서 볼 때 실리와 실익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다른 협조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었을 것이다.